



조성일씨

독자중심의 사이버공간 구축이 급선무

적극적 정보이용자의 성격 고려해야

조성일 | 인터넷북리뷰 '부꾸' 대표

희망찬 새밀레니엄이 시작됐다. 여기저기서 축하의 물결이 넘실거린다. 무엇을 축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대한 발전적 염원을 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사는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연대기적 의미만 '1999'에서 '2000'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2000년대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예고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통하는 사이버 공간이 그 중심에 놓여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00년대의 출판도 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예외는 아니다.

장미빛 미래와 후진적 출판환경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출판계의 정보화지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출판사를 제외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만든 책에 대한 서평기사가 서비스되고 있는데도 확인조차 해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에 꼭 접속해야 할 때 사무실 주변에 있는 'PC방'으로 달려간다는 어느 편집자의 고백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PC방이라도 가서 인터넷을 접속해보겠다는 의지가 가상하지 않은가.

지난해 가을부터 많은 출판사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출판계가 점차 사이버 공간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남이 장에 가니 나도 간다'는 식이어서 우려스러움 또한 떨칠 수 없다.

어디 한번 짚어보자. 현재 서비스되는 출판사

홈페이지들의 경우 대부분 붕어빵처럼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솔직히 말해 그렇게 만든 출판사 홈페이지에 하루 몇 명이나 접속하고 있는지. 사실 '개점휴업' 상태가 태반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네티즌의 외면에 야속해 할 문제가 아니다.

네티즌들은 단 몇권의 책 정보를 얻기 위해 출판사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한곳에서 되도록 많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출판사 홈페이지마다 기웃거리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투자한 시간(접속 시간은 곧 돈)에 비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별 출판사 홈페이지 방문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금 대신 홈페이지를 안 만들 수도 없고, 만들자니 방문자수가 별로 없고, 이래저래 고민이다.

독자 중심으로 사고 전환해야

그래서 감히 제언을 하면, 개별 출판사 홈페이지는 각 출판사들이 갖고 있는 대표상품을 이용한 특별한 공간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 네티즌을 다 수용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특정 독자군들만이라도 먼저 만족시키면서 그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타 분야로 넓혀나가는 식이다.

특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생산자 중심에서 독자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최근 유행하는 경매 사이트가 아니라 막 시

출판계가 앞다퉈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생산자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을 운영한 탓이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다. 기술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독자의 입장에서 사이버공간을 재구축해야 한다.

작되는 역경매사이트 같은 발상 말이다. 경매 사이트는 상품을 팔 사람이 살 사람들이 제시하는 가격을 보고 가장 비싸게 제시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라면, 역경매 사이트는 살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얼마에 팔 수 있는지 가격 제시를 하게 해 가장 싸게 제시한 사람의 상품을 산다.

또한, 기술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콘텐츠적 발상이 요구된다. 독자들이 필요한 것은 콘텐츠다.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고 빠르게 원하는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독자 중심의 공간이다. 네티즌들은 지금까지 정보수용자 차원에 머물던 독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들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정보이용자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출판계는 커다란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다. 영상 이미지의 급부상으로 인한 활자문화에 대한 회의감이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한다. 또 전자출판 같은 새로운 개념의 출판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누비는 네티즌도 로봇처럼 변한 판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자신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살아남기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만 사고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